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3.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산 자의 땅에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파랗게 맑은 하늘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누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마음을 다해 생을 경축하며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의혹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의 심연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부심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	-----

♠ 교 독 문	16. 시편63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한지혜 선생	II. 한완식 장로
------------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517.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막5:25-34	인도자
------------	-------------------	-----

II. 벰전1:13-21	김인걸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예·친·소	김재흥 목사
-----------	----------------	--------

II.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185. 내 너를 위하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단정하면서도 확고한 발걸음으로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희망의 노래로 잠든 영혼들을 깨우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넘어진 벼들이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익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며 살겠습니다. 바깥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내면의 뜨락을 살뜰하게 가꾸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9월 동호회 활동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2)/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임정자 권사

다음 주 에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지은 선생 청년 중에서	인도자 청년 중에서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진정숙	정진경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안길상	곽혜자	이순정	박효선

인디언의 어린 시절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큼 사실과 거리가 먼 것도 없다. 어느 부족을 막론하고 인디언 아이들은 대대로 전해져 오는 모든 관습을 빠짐없이 배워야만 했다. 그리고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그것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날 영혼에게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만을 물려주기 위해 부부가 합심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 아이를 가진 인디언 여성은 종종 자신의 가족이나 부족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선택해 곧 태어날 아이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인물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인물의 행적과 용기 있는 행동들을 수집하고, 혼자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마음에 되새겼다. 심지어 그 인상을 더 강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했다.

벋속에 아이를 가진 여성은 가능한 한 혼자 지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으면서 홀로 돌아다녔다.

인디언들은 태어날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을 선물로 주는 동물들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가 하면 매우 해로운 인상을 남겨서 아이를 괴물처럼 만드는 동물도 있었다. 언청이가 태어나는 것은 흔히 토끼 때문이라고 여겼다. 토끼가 아이 엄마에게 주술을 걸어 자신의 입 모양을 아이에게 전해 준다는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특정한 고기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아이의 성격이나 생김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인디언 아이에게는 조상과 부족의 전설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거의 매일 저녁, 아이의 부모나 조부모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나 신화 한 가지씩을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는 낮을 잃은 채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날 저녁이 되면 아이는 전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어야만 했다. 만일 아이가 학자 타입이 아니라면 그것을 외우는 데 한동안 애를

먹겠지만, 인디언들은 청중이 되어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거나 박수를 쳐주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아이의 영감을 일깨우고 꿈을 자극했다. 그럼으로써 아이는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바를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었다.

인디언 아이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꼭 배웠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면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용기 있고 상상력 풍부한 인디언 아이의 자세였다. 인디언은 어려서부터 홀로 숲 속을 돌아다니는 데 익숙했으며, 결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인디언이 지닌 특별한 기술들이 타고난 것이며 유전에 의해 물려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인디언들의 자기 절제와 인내심은 모두 강한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뛰어난 조각 예술도 홀로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인디언들은 누구라도 신체 단련과 금식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역시 고깃국이나 어떤 따뜻한 음료도 마시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받던 때가 있었다. 고깃국은 주로 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젊은 사람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도, 물을 많이 마셔서도 안 되었다. 그것이 인디언들의 일반적인 규칙이었다.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나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삼촌은 매우 엄한 교사이자 훌륭한 스승이었다. 내가 아침 티피를 나설 때마다 삼촌은 말했다.

“오히예사야,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내가 티피로 돌아오면 한 시간씩, 때로는 그 이상씩 문답식으로 가르침을 폈다.

“그 나무들은 어느 쪽 꺾질이 더 밝은 색이더냐? 어느 쪽으로 나뭇가지가 더 많이 자라 있더냐?”

삼촌은 그날 내가 처음 발견한 새들의 이름을 말하게 했다. 나는 새의 색깔이나 부리의 모양, 또는 노랫소리, 생김새, 등지의 위치에 따라 이름을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들 각자의 특징이 내 안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그때마다 삼촌은 새들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었다. 어쩌다 내가 제대로 이름을 알아맞히면 부드럽게 칭찬해 주었다. -오히예사, <<인디언의 영혼>>

(우리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

동티모르에서 우리는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외국인들의 가르침을 인내심 있게 배우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재료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여간해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지 않는 우리 나라의 ‘배부른’ 아이들과 너무나도 큰 대조를 느낀다. 세상은 그렇게도 불공평하다. 배움이 목까지 차서 더 이상은 배울 수도 없는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보내서 ‘과식’을 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라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교사도, 교육재료도, 교육을 위한 돈도 모두 그 배불러 터진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세계 현실이다. 이번 여름에도 전쟁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평화 학교가 뜨거운 동티모르의 정글과 황량한 아프가니스탄의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무에 불지피 밥과 찬을 지어먹고,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며, 밤에는 온갖 벌레들에게 물려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어린이들에게 성심으로 평화를 가르치는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 멀지 않은 훗날 전쟁도, 폭력도, 국경도, 비자도, 차별도, 억압도 없는 세상이 실현될 것을 꿈꾸게 된다.

7년 동안 평화 학교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실망도, 낙심도, 비난도, 좌절감도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그늘들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한 꿈을 이길 수는 없었다.

-송강호(사단법인 <<개척자들>> 대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홍순구 안홍숙 배삼순 이은옥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김윤수 박옥경 박창운 허정윤 임고운 무명1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문금석 김종문 지명주 김정섭 이갑재 배부례 송임희
박순성 김성자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김병준 이기분 이한림 김명희 권채영 정원석 김현영
장재영 김재영 송동준 김진경 박규석 박경선 오진훈 노순옥 박석희
조항미 이응구 한선희 무명4

100주년 기념사업 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재흥 최희영 장영숙 배근수 김금순 이경남
(누계: 3,82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하 재 두	최 희 영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정 복 순	서 원 금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근 석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이 인 섭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김 희 우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강 순 배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안 홍 숙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 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테니스 동호회와 자전거 동호회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4. **아름다운 원로** : 9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좋은 나눔과 친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5.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가을 모임이 21일(목) 오후 7시부터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저녁식사는 6시부터).
6. **결혼** : 광동기/전나래 씨의 결혼식이 9월 23일(토) 오후 2시에 경남 거창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헌화 : 한지혜 한준혜 (생일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